

지역 메아리

완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완주군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마무리, 첫 출발을 알렸다.

지난 3일 완주군은 박성일 군수, 정성모 군의장, 도의회 송지용 운영위원장, 박재완 도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초 소양면사무소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 되고, 면적이 협소해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에 청사 신축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완주군은 사업비 76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 3월 착공을 시작해 올해 10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신청사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79㎡ 규모로 민원실, 면장실, 중대본부 외에는 대부분 면적을 주민이용 시설인 북카페, 취미교실, 평생학습실, 체력다련장 등으로 구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봉동 아무진생강테마축제 성료

봉동생강골시장 제2회 아무진생강테마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완주군과 전라북도 등 후원하고 전라북도 시장상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함께한 봉동생강골시장 제2회 아무진 생강테마축제는 1,000여명이 찾아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첫째 날은 개그맨 황기순씨의 사회로 완주군민들을 위한 노래자랑이 진행됐으며, 박진도, 민지 등 초창가수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공연과 경품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원주= 이종복 기자

김제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김제시는 올해 가을철이 고온 건조한 날씨와 평년보다 적은 강수예보로 인해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0월 23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사역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제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원녹지와 및 금구면·금산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을 위하여 7개조 42명으로 편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주·야간 상시대가 운영하며 산간오지대, 주요등산로, 산별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원 35명을 전면 배치해 총 77명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 성료

체험학습·무대공연발표회·성인문해한마당 등 학습과정 구성

김제시에서는 지역 평생교육진흥과 학습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시민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제8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배움의 열정, 행복이 꽃피는 더 큰 김제!' 라는 주제로 128개 평생교육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체험학습과 무대공연발표회, 성인문해한마당 등 다양한 학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뜨거운 학습열기와 호응을 받았다.

홍보체험관인 배움마당에서는 100여 명의 부스에서 다양한 학습체험과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체험관을 비롯해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이 펼쳐져 유아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관람객의 체험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발표마당에서는 학습동아리,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수강생 발표회, 청소년어울마당 등의 공연발표가 이어져 그동안 배웠던 학습을 뽐내고 발표하는 무대가 되었으며 가족단위 학습자를 위한 4D 창의과학체험, 추억의 교실, 행복학습 페스티벌, 성인



김제시에서는 지역 평생교육진흥과 학습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시민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제8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문해 거리사회전 등 다채로운 학습행사도 펼쳐져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학습주역을 만들었다.

조종현 인제중앙교장은 "인생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대사회에서 비전있는 미래세대의 해법은 바로 평생학습이라고 전하며 나를 위한 학습이 이

웃과 함께 나누는 상생의 행복학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배움을 나누는 재능기부의 장을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평생학습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한옥문화공간 '흥' 소리 풍류관 개관

복합문화공간 역할 기대

김제시에 한옥문화공간 '흥' 소리 풍류관이 조성돼 5일 개관식을 가졌다. 금평저수지와 제비산이 어우러진 금산면 모악7길 120(청도리 625-10) 일원에 위치한 이 곳은 한옥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강일도에서 공수한 고급 소나무와 경북 고령에서 생산한 전통 한식기와를 이용 전통 공법으로 건축됐다.

198㎡ 면적에 진공관 열풍 등의 음향 시스템을 갖춘 흥소리풍류관은 국악 전수관이자 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통 한옥카페 수월담이 132㎡ 면적으로 조성돼 방문한 이들이 차와 함께 음악을 즐기면서 짧은 시간 안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문화적 편의의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는 4천여장의 LP판이 구비돼 있어 주말에는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음악을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한옥으로 야외 화



김제시에 한옥문화공간 '흥' 소리 풍류관이 조성돼 5일 개관식을 가졌다.

장실과 정자 수월정을 건축, 정자에 앉으면 금평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와 아름다운 풍광을 선물한다.

5일 개관행사에서 관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100여명을 초청, 개관식과 작은 음악회 형식의 개관축하공연이 마련돼 신혼자 씨가 재학 중인 원광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교수진 및 재학생, 김제시 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이 출연했다. 이경식 김제시장은 축사에서 "문화소외지역의 주민들이 국악을 좀더 쉽게 배우고 다채로운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나눔냉장고, 집까지 배달해드려요

완주 삼례읍, '찾아가는 굿 푸드셰어링' 운영

완주 삼례읍이 나눔냉장고를 안방까지 배달하는 '찾아가는 굿 푸드셰어링'을 운영한다.

지난 3일 삼례읍은 나눔냉장고의 공유방식에 착안, 복지사각지대와 성장기에 놓여있는 아동들을 위해 찾아가는 굿 푸드셰어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굿 푸드셰어링은 삼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기부 받은 식품을 거품이 불편하고, 반찬 만들기가 녹초처럼 어려운 독거 중장년, 어르신, 성장기 아동 등의 집 냉장고까지 배달해주는 사업이다.

삼례오일장에서 농산물을 후원 받아 조리한 밑반찬과 새참수레에서 제공하는 착한 반찬, 퐁파, 소고기 등 육류, 빵, 분식류 등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150여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삼례읍새마을(대표 김정은), 삼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현하), 한도령분가추어탕(대표 한규현), 봉동간호학원(원장 최인귀), 폐지사랑우림(대표 김건석), 달보드레(대표 정은주), 깨순이김밥(대표 조승규) 등 7개 기관이 함께한다.

이용될 삼례읍장은 "찾아가는 굿 푸드셰어링은 복지사각지대의 우울증, 고독사 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국정과제 따른 지역 발전전략 논의

완주군이 한국자치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지역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지난 3일 완주군은 지난달 제1차 미래발전 정책포럼에 이어 제2차 학술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성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의 개회사와 이남호 전북대 총장, 안병욱 환경부 차관, 이종민 완주군미래발전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이번 포럼은 '신정부 정책패러다임 전환과 지역혁신 전략', '스마트미디어 시대, 지방분권과 언론'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각 분야가 회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1분과는 이해영 영남대 교수의 사회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임승민 명지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분권과제'를 발표하고, '협치와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사례'를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이 발표했다.

2분과는 임낙평 국제기후 환경센터장의 사회로 '환경,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역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새 정부 환경정책의 전환',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지역에너지 분권' 등에 대해 환경부 김영훈 국장과 이우진 에너지정책연구소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스마트미디어 시대, 지방분권과 언론'에 대해서는 1분과에서 안국찬 전북대 교수의 진행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언론의 역할'을 비롯해 '지방분권개헌과 언론', '자치행정과 언론의 과제'에 대해 각각 송재혁 교수와 이상업 교수의 사회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의 환경, 에너지, 지역재생과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NGO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거버넌스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임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협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 지휘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지역 지휘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원)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	--